

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11.21)

1. 한국의 지소미아(GSOMIA) 종료 결정 관련

□ [미국 정부 및 의회 반응]

-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‘한국이 일본과의 주요 정보 공유 협정 참여를 끝내는 비생산적인 조치를 취했다’며 ‘주한미군에 대한 위협을 높이고 한·미 동맹을 훼손한다’고 지적¹⁾
-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관은 11월 20일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음.
- o 결의안은 ‘한국이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할 것’을 촉구하고 ‘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,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’며 ‘한-일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들에 힘을 넣어줄 뿐’이라고 강조
- o 결의안 발의에는 밥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, 잭 리드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초당적으로 참여

□ [미국 전문가 반응]

-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사령관은 ‘(지소미아 종료는) 동맹에 생각했던 것보다 큰 영향이 있을 것’이라고 우려²⁾
- o ‘큰 영향’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정보 공유 차원의 문제보다는 더 클 것이라고 주장

1) 「미 상원, ‘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’ 촉구 결의안 발의...“한-일 갈등, 안보와 분리해야”」 『VOA Korea』 (2019. 11. 21).

2) 「브룩스 前사령관 “한미동맹 긴장...매우 중요한 시점”(종합)」 『연합뉴스』 (2019. 11. 21).

-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‘(한국과) 일본 관계의 질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’
이라면서 삼각 협력 메카니즘도 ‘쇠퇴할 것’ 이라고 전망